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02.37	↑ 코스닥	839.45
	(+134.03)		(+57.40)
↓ 금리 (연이자율)	3.877	↓ 환율 (원/달러)	1297.30
	(-0.072)		(-25.10)

메모리 반도체 업계
챗GPT 돌풍에
HBM 경쟁 본격화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韓, 가계빚 선도국?... 부채 비율·증가속도 '독보적'

OECD 16개국 2022년도 가계부채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 비율 감소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게 상승 10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 203.7% 2021년 기준 美·日은 적정선 유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문에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불어나는 속도가 독보적으로 두드러졌다.

6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2년에 153.9%로 포르투갈(155.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무려 49.8%포인트(p) 급등해 2022년 기준 203.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포르투갈은 120.6%(-34.6%p)까지 줄었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았던 영국 또한 159.7%에서 146.2%로 13.5%p 내려갔다.

이날 기준 16개 회원국의 2022년도분 가계부채/순가처분소득이 공개됐는데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은 이 비율이 도리어 축소됐다. 수치가 늘어난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2년에 165.9%로 가구빚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른 바 있

다. 스웨덴 역시 10년간 상승폭이 28.9%p(16개국 중 2위)로 꽤 컸으나 지난해 기준 194.8%로 우리보다 8.9%p 낮았다.

덴마크(314.2%→207.4%)와 네덜란드(272.7%→210.8%)는 각각 -106.8%p, -61.9%p의 엄청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리스도 작년에 81.8%로, 2012년(126.4%)에 비해 44.6%p 줄었다.

또 이탈리아(91.1%→87.6%)가 -3.5%p, 오스트리아(91.0%→88.8%)가 -2.2%p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밖에 독일과 체코는 10%p 이내의 상승폭, 캐나다와 벨기에, 프랑스는 20%p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빚 비율이 3번째로 높았다. 이제 네덜란드·덴마크마저 추월할 기세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2014년 158.0%로 소폭 오른 이후 2016년(174.5%)과 2018년(185.0%), 2020년(197.8%)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으로 200% 선을 넘어섰다. 다만 2021년(209.8%)에 비해서는 작년에 소폭 내렸다. OECD가 한국 관련 해당 수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08년에는 138.5%에 그친 바 있다.

2021년도분까지만 공개된 미국과 일본은 가계부채가 적정선에서 꾸준히 관리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12년



尹 대통령, GTX 열차서 국민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 동탄역 GTX-A 노선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114.7%에서 2021년 101.8%로 12%p 이상 내렸고, 일본은 상승(108.3%→122.1%)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이래 대체로 100~110% 선을 유지해 왔다.

멕시코는 이 비율이 25.6%(2021년)로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또 독일(99.5%·2022년)과 스페인(101.5%·2021년), 아일랜드(112.8%·2021년) 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저작권·정보유출 등 경각심 커져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중 비난도

AI의 은밀한 비밀

<下> 한국은 지금

신문협회, 네이버와 저작권 갈등 지니뮤직, 음악저작권협회 논쟁 이루다, 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국 내 굴지의 인공지능(AI) 기업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AI 산업의 저작권을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챗GPT(chatGPT)가 이목을 끌기 전 2020년 AI 저작권과 관련해 흥역을 치른 바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물 소비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며 기업 또한 대처를 시작했다.

한국신문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뉴스 저작권 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신문협회의 움직임은 네이버의 LLM(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50년 분량의 뉴스와 9년치의 블로그 콘텐츠를 학습했다 밝힌 데서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7월에도 지니뮤직이 AI 편·작곡서비스 '지니리라'를 공개한 직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한 갈등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나타난 단체와 AI 기업간 저작권 논쟁 전 이미 대중과 기

업의 AI 개발 문제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바로 스캐터랩이 개발해 2020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대화형 AI '이루다'다. 이루다는 맥락을 가진 자연스러운 대화로 큰 호응을 받았으나 학습 데이터셋이 타 어플을 통해 수집된 100억 건의 채팅내역으로 밝혀지며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셋 사건은 정부가 스캐터랩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5550만원에 과태료 4780만원 총 1억 33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저작권과는 연관이 낮으나 이루다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셋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루다 사건 이후 AI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저작권, 정보유출 등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았고 문제제기도 활발해졌다"며 "특히 지난해 챗GPT에 앞서 공개된 이미지 생성 AI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오픈AI가 챗GPT에 앞서 공개한 달리(DALL-E) 등 이미지 생성 AI들은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것과 동시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무단 학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겪은 당사자들을 지명할 수는 없으나 특정 작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림체와 스타일이 생성되면서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단숨에 2500선

코스닥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공매도 잔고 많은 2차전지株 급등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2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6% 급등한 2502.38에 거래를 마치고, 2020년 3월 25일(5.89%)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9월 22일 이후 45거래일 만이다. <관련기사 2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03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도 2043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개인만 9169억원을 쏟아내며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전지 종목이 급등했다. LG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82.05)보다 57.40포인트(7.34%) 상승한 839.4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에너지솔루션은 전거래일보다 22.76% 오른 49만3500원을 기록했고, POSCO홀딩스도 19.18%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34만9500원까지 올랐다.

삼성전자(1.87%), SK하이닉스(5.72%), 삼성바이오로직스(3.83%), 포스코홀딩스(19.18%), 현대차(2.60%), LG화학(10.62%), 삼성SD

I(11.45%) 등 모든 시총상위 종목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82.05)보다 57.40포인트(7.34%) 상승한 839.4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 역시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57분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그 이후로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된다.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718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876억원을 팔아치웠다.

2차전지대주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29만9000원, 8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8일 국회에서 위촉식
▲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사진 뉴시스

▲ 합참차장에 황유성 중장... 군, 하반기 장군 인사 단행
▲ 대통령실 이달 하순 개편... 홍보 이도운 유력·정무 한오섭 거론



▲ 태영호, 뉴욕·워싱턴서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 캠페인 /사진 뉴시스
▲ 합참 "북한, 18일 미사일공업절 계기 경찰위성 3차 발사 가능성"

“불법 보편화, 공매도 금지 불가피... 제보자에 역대 포상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이자이익 60조 ‘역대최고’
어떤 혁신의 대가인지 의문 들어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개편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시장에 대해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것”이라며 “불법이 만연하고 적정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환경이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아니냐는 질문에 “정당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미 100여개 종목 이상이 무방비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전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간 공매도 금지 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론에 난색을 표하던 당국이 전면 금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당정이 협의해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시장조치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외국인 투자자 문제 등 부작용과 한계와 함께 법률상 요건을 차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주가를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올려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틈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불공정거래유인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한 금융당국 협력시스템을 만들었고, 적극적 제보자는 역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에 대해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으로 비교하면 은행권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앞서서 돈 번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왜 비난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비교해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변동 금리 위주로 고객에게 리스크를 모두 전가하는 수익구조도 꼬집었다.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금융 역시 진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했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계약과 광고 정보 이용료 계약이 구분된다는 쟁점은 잘 알고 있지만 왜 매출에 비례해서 정보 이용료를 주는지. 그렇다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 부분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GTX-A 이용편 수도권 30분 통행권 달성”

尹 대통령, 현장점검·주민 간담회 일정 앞당겨 내년 3월 GTX-A 개통 이동시간 1시간20분 →19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수서역~화성 동탄역) 사업 일정을 앞당겨 3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난 1일 ‘민생 타운홀’과 지난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행보다.

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GTX-A 노선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 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TX-A 노선의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된다”며 GTX-A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원 장관은 GTX 이외에 8호선 연

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2026년)을 각각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동선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A 개통 준비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오른쪽) 김포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포 편입, 시민 공감대 바탕 논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김병수 김포시장
김 시장 “김포시, 섬 아닌 섬 우려
서울 편입, 동반성장·시너지 기대”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이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서해안 항구개발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 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게임업계, 생성형 AI 인식전환 가능성도

» 1면 ‘AI의 은밀한 비밀’서 계속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웹툰으로 지목된 후 악평이 쏟아진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은 첫 화가 업로드된 직후 생성형 AI로 작업했다는 논란이 일며 별점이 2.68점(5점 만점)까지 떨어졌다. 독자들은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학습

한 AI를 작가가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네이버 웹툰 측과 작가는 사과를 했으나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을 확인한 네이버 웹툰은 진행 중이던 공모전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고 카카오웹툰 스튜디오도 6월 진행한 공모전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대중의 생성형 AI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도리어 저작권 등에 문

제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네이버 웹툰이 지난 5월 공개한 ‘툰필터’는 공개 일주일만에 2000만 장의 이미지가 생성됐고 10월에는 8000만 장을 넘겼다. 툰필터는 사진을 넣으면 네이버에서 연재되는 웹툰 스타일로 바꿔주는 이미지 생성 AI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작화 작업에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활용되지만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인식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김서현 기자 seoh@

美 긴축종료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 존재, 금리인상 필요할 것”

한은-세계은행 ‘서울포럼’

서머스 교수, 이창용 총재 대담
“연준, 올해 움직이지 않을 것
韓, 중립금리 상승 주의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한국은행-세계은행(WB) 서울포럼을 계기로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과장된 생각이다.”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6일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세계은행(WB) 공동 주최 서울포럼,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화상대담을 통해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美 연준, 12월 동결...내년 1차례 금리인상

서머스 교수는 “오는 12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동결을 택하겠지만, 향후 1차례 금리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을 보면 지난해 6월 6.8%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5.4%, 3월 4.2%, 9월 3.4%로 떨어졌다. 개인소비지출은 개인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비한 비용을 합한 것으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득이 줄고 수요가 감소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가 한달 간 20만~30만개씩 증가해 소비자의 소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10월말 기준 신규 일자리가 15만개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감소가 뚜렷해지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로 하락했다. 12월까지는 금리동결로 추세를 지켜본 뒤 목표치(2%) 달성을 위해 1차례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 분석이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은 12월에도 움

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고 경제도 꽤 견조하다”며 “앞으로 한번의 추가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중립금리 높아져...“한국도 마찬가지”

특히 이날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의 중립금리도 글로벌 중립금리를 추종하는 경향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립금리

는 물가와 경기가 안정될 수 있는 적정 금리수준을 말한다.

서머스 교수는 “실질 중립금리가 현재 1.5% 수준이고, 향후 물가상승률은 2.0~2.5% 사이가 될 것”이라며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1.0~1.5%포인트(p)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국의 국채금리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년만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장기물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머스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저성장 압박이 강해져 미국보다 한국의 중립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장기적 무역의존국가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중립금리를 순수 국내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실수다”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주현 “가계대출 증가속도 높은 금융사 밀착 관리”

(금융위원장)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김 위원장, 가계대출 관리강화 강조
공매도 관련 책임감 있는 역할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회사들은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성장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년 104.5%, 2023년 101.5%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하에서 대출상품을 설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밀착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겠다”며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도 적극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감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비트코인, 올해만 110% 상승... “강세장 이제부터 시작”

3만5000佛대 거래... 연고점 갱신도
내년 반감기 가능성에 추가상승 전망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10% 넘게 상승하면 ‘디지털 금(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추가 상승에 무게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48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일 3만58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만6700달러에 거래되면서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다.

6만5000달러(2021년 11월 14일)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이 기간 5만달러 넘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시장 침체에 진입했다.

하지만 올해 실리콜밸리은행(SVB) 폐쇄를 시작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신뢰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선택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반기 3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이후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에 비트코인은 올 초(1만6700달러)부터 현재까지 총 112%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대급 강세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다.

4년 주기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총량에 다가가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점점 감소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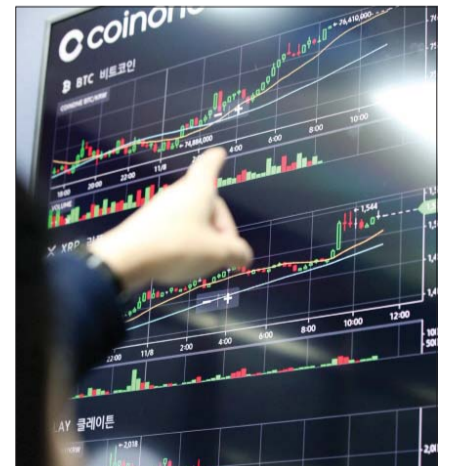
있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달러(2억295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역시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 재료가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법원도 비트코인 선물ETF를 허용하면서 현물ETF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승인은 시간문제다 보인다.



올해 비트코인 상승률이 110%를 돌파하고 있다. /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시장 랠리를 놓고 잠재적 호재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며 “현재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어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챗GPT 돌풍에 HBM 품귀 심화... D램 시장 주도권 경쟁 가속

〈고대역폭메모리〉

SK하이닉스

HBM3·HBM3E 생산물량 계약

삼성전자

내년 HBM 생산량 2.5배 늘려

AMD

MI300 경쟁력으로 메모리 쏘아



리사 수 AMD CEO.

/AMD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을 본격화한다. 일찌감치 수요가 공급을 훌쩍 넘어선 상황, 실적 회복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까지 HBM3와 HBM3E 생산 물량 계약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HBM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HBM3 양산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HBM3E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마이크론도 내년 HBM3 양산할 예정이다.

◆ HBM 품귀 심화

HBM은 D램을 쌓아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다. 반도체간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 저항을 최소화하는 원리로 성능을 극대화한다.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가속기에 주요 부품으로 사용된다.

AI 가속기 시장이 급증하면서 HBM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챗GPT를 돌풍으로 서버업계가 생성형 AI 구축 경쟁에 나서면서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서게 됐다. 엔비디아 뿐 아니라 인텔과 AMD 등도 AI가속기 경쟁에 합세하면서 HBM 품귀 현상도 심화했다.

메모리 업계 적자 해소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HBM 성장률이 연간 40~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매출 비중이 올해 10% 수준에서 수년 안에 20% 가까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BM이 메모리 업계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격이 D램보다 몇배나 비싸 수익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3분기 HBM을 발판삼아 D램 사업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도 HBM3를 출하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부터는 D램 흑자 기대감이 크다.

AI 가속기 업계 HBM 구매 작전도 노골적이다. 최근 해외 서버 업계 관계자들이 HBM을 구하기 위해 대거 국내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MD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자사 AI 가속기인 MI300이 경쟁 제품보다 많은 HBM을 탑재해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국내 업체에 공급을 서둘러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 기술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가 내년 HBM 생산량을 2.5배 늘리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 진입에는 다소 늦었지만, 생산량을 늘려 시장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점유율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삼성전자는 자사가 우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기술 경쟁력이다. HBM은 전자가 이동하는 구멍을 균일하게 뚫어 연결하는 TSV 기술이 핵심이다. D램을 8단으로 쌓는 3세대, HBM2E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12단 이상 쌓아야 하는 4세대 HBM3부터는 발열로 성능 저하와 제품 변형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패키징으로 분류되는 TSV 기술은 양사 모두 수준급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2.5D와 3D 등 다양한 패키징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AVP 사업부를 따로 둘 정도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일찌감치 패키

징 중요성을 확인하고 TSV와 관련한 기술을 높여왔다.

SK하이닉스는 HBM3부터 종전까지 사용했던 비전도성 특수 필름(NCF)을 칩 사이에 끼는 방식 대신 액체 형태 보호제를 사용하는 MR-Muf 방식을 채택하면서 공정 효율과 성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NCF 방식을 사용 중이다. 일각에서는 성능 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는 소재와 공정 기술을 최적화해 밀도를 높이고 열전도도 극대화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삼성전자는 D램 개별칩에서는 비교 우위로 평가된다. 미세공정 기술이 높아 상대적으로 성능은 물론 크기도 작아서다. 삼성전자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14나노급 D램으로 HBM3E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HBM4 승부처

양사 기술 경쟁은 6세대 HBM4를 양산하는 2025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0년대 적층부터는 NCF 방식뿐 아니라 MR-Muf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기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도 훨씬 커진다.

양사는 일단 기존 기술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을 뚫어 구리를 주입해 빈 공간이 없이 완전히 붙이는 방식으로, 미세공정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다. 3D D램과 500단 이상 낸드플래시부터 도입을 준비중인 상황, HBM4에 먼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사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서도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육성을 지속해왔다. 핵심 공정으로 다시 주목받는 연마 공정, CMP는 물론 소재 등을 꾸준히 개발하며 고도화해왔다. 앞으로 양사가 HBM 시장 대부분을 양분할 것이라 보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이 미래 먹거리임은 분명해지고 있다"라며 "다양한 기술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2023. 11.17.(금)~19.(일) (3일간)
삼향읍 남약중앙공원 일원

무안군

“전기차로 가정·빌딩에 전기 공급”

산업부, 47개 과제 규제특례 실증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등 승인

전기차에 충전했던 전기를 가정이나 건물에 공급하는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현대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통해 전기를 매개로 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전서비스(V2X)' 실증에 나선다. 해당 기술은 전력의 충전 및 방전기

능이 탑재된 전기를 활용해 가정(V2H), 빌딩(V2B), 전력망(V2G)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기술이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높을 때 가정, 빌딩,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 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전방향을 실행하고, 충전기에 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의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전기차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 사례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www.nhis.or.kr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소득정산제도
설명 영상 QR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보협 “혁신위, 숫자놀음 아닌 실력있는 보좌진 육성 우선”

인요한, 국회 보좌진 감축안 논의
별정직 공무원·인턴으로 9명 채용
한 해 인건비로만 1500억 이상 추계
인턴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 없어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채용
2년마다 교체... 전공 살리기 어려워

‘입법과 지역구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이라는 의회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비대면 회의에서 국회 보좌진의 연봉과 숫자를 줄이는 것을 ‘2호 혁신안’의 내용으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다음 날(2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에서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국회 보좌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않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가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

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급의 경력직 채용은 평관조이나 전문 자격증 인증을 통해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나, 인턴이나 비서관의 교육 및 양성은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이 맡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회기를 거듭할 수록 국회의원의

1명당 보좌직원의 수와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찌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 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은 공고를 내고 이력서 검토,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독자적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높다.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어렵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과 전문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선진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하원의원 1인당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공무원

으로 채용하고 입법과 정무가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재량껏 채용하고 입법, 공보, 민원, 지역구 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을 7~8명 고용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3명이다. 이 중 정책비서의 경우 10년 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협은 입장문에서도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보협 관계자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보좌관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보좌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인요한, “친윤 희생” 요구에 지도부 ‘침묵’

“친윤 의원에 결단 내려달라 전화”
초선인 이용 의원 불출마 선언
‘통합’에 이어 성공 어려워 보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불출마 혹은 협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혁신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통합’(징계 취소)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큰 반향을 주지 못한 만큼, 2호 안건인 ‘희생’에 적극적인 화답이 있어야 혁신위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면 희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지목한 ‘친윤’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대략 30여명 선이다. 친윤계로는 권성동(4선, 강원 강릉)·장제원(3선, 부산 사상)·윤한홍(재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박성민(초선, 울산 중구) 등 5명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언급된다. 영남권의 3선 이상 중진의 경우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을 합쳐 16명 선이다. 비(非) 영남권은 10여명 정도 된다. 국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부산 남구 경성대에서 열린 ‘이연주&이준석 특!특! 콘서트’에 참석, 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뉴시스

의힘 소속 현역 의원(111명)의 30% 가량이 희생을 요구받은 셈이다.

하지만 모두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을 한 셈이다.

진행자가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말하자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혁신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이 위기인 만큼 스스로 나서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는 ‘인적 쇄신’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성적표가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인 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 할 것이고 협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됐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이 의원에 이어 누가 나설지에 쏠린다. 일단 인 위원장의 ‘권고’에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때문에 여론 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해 “성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을 위한 징계 취소는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 시장이 불쾌감을 드러내 어색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런데 2호 혁신안마저 별다른 호응이 없다면 혁신 동력도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어 ‘릴레이 불출마 선언’은 곧바로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

정의당, 이정미 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가 6일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이라며 “저와 7기 대표단 모두는 당의 일원

으로 이번 전국위 결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노동세력, 지역 정당 추진 세력을 포함한 제3정치세력을 폭넓게 만나고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혁신재창당을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과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당, 노동계 등 진보세력과 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韓·美·日,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고위급회의 분기별 정례화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 3국이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전했다.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성환 2차장은 지난달 30일 호주 대런 골드 국가 사이버 안보조정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geo centric**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작품명 **폐플라스틱의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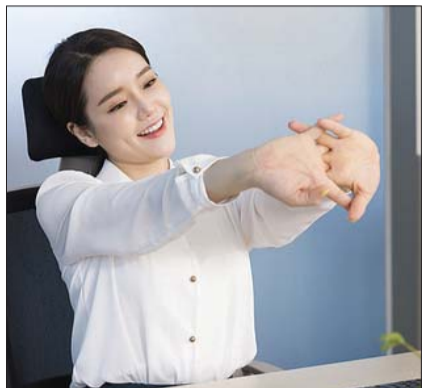
플라스틱의 순환은 지구의 순환이니까
SK지오센트릭은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가치로 만듭니다



SK지오센트릭의 **그린픽처**

보험사, 헬스케어 블루오션 ‘페뎠테크’ 시장 공략

여성 건강관리 수요 급증에 2027년 페뎠테크 시장 79조 전망 업계, 여성 위한 마케팅 확대 DB생명, 여성전용 상품 출시 한화손보 페뎠테크연구소 설립



여성 건강관리 수요 급증으로 페뎠테크 산업 규모가 확대돼 보험사들이 여성 특화 상품·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유투이미지

보험사들이 여성 전문 상품·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여심 잡기에 나섰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건강관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건강 솔루션에 초점을 둔 ‘페뎠테크(femtech)’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페뎠테크 시장 성장세에 보험사들은 여성보험 마케팅을 확장하고 있다. 페뎠테크(femtech)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상품,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DB생명은 지난 1일 여성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여성 전용 건강보험 ‘(무)백년전구 레이디케어 암보험’을 출시했다.

여성의 사전적 건강관리에 집중해 암보험을 기획했다. 여성 중대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조 질환도 보장 받을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여성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에 집중했다”며 “여성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출시했다”고 말했다.

KDB생명도 지난 1일 여성 맞춤 건강보험인 ‘(무)원하던 여성건강보험(갱신형)’을 선보였다.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암을 비롯해 주요 질병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여성 다빈도 질병 치료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며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과 질병을 더욱 깊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전문보험을 선도하는 한화손해보험의 LIFEPLUS 페뎠테크연구소는 지난달 23일 이화의료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6월 업계 최초 페뎠테크연구소를 설립해 여성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양사 연구소는 여성 헬스케어 연구를 통해 여성이 신체적·사회적으로 직면한 여러 어려움 해결에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LIFEPLUS 연구소장은 “여성들의 수요에 대응한 상품·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잇따른 여성 시장 수요 공략에 대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페뎠테크 산업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페뎠테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17억 달러(약 28조원) 수준이던 글로벌 페뎠테크 시장규모는 연평균 15.6% 성장해 2027년에는 601억 달러(약 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페뎠테크 기술 발전으로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2030년경 페뎠테크 분야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약 1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페뎠테크 산업의 긍정적 성장 가능성 전망에 보험업계도 시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페뎠테크 관련 성장 전망을 보면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성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비씨카드

서울 학원 밀집도 강남 대치1동 ‘최고’

비씨카드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원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대치1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학원 업종 밀집도 조사

비씨카드 데이터사업부는 서울시 426곳 행정동의 학원 운영 밀집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 면적(100㎡)당 업종 밀집도를 산출했다. 행정동 내 전 가맹점을 업종별로 재분류했다. 밀집도가 50%인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학원 업종과 관련된 가맹점이란 의미다.

대치1동의 학원 업종 밀집도는 매년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0.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필리핀 여행객 대상 내달 26일까지 할인

신한카드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협업을 통해 필리핀 내 호캉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웨스틴 마닐라, 셰라톤 호텔 등 할인 신한카드는 연말까지 본보이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호캉스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여행객을 대상으로 내달 26일까지 단행한다. 같은달 31일까지 투숙하는 고객 중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한다. 스위트 객실 예약을 최대 15% 할인한다.

행사 호텔은 ▲웨스틴 마닐라 ▲마닐라 메리어트 호텔 ▲셰라톤 마닐라 호텔 ▲셰라톤 마닐라 베이 ▲클라크 메리어트 호텔 ▲셰라톤 세부 막탄 리조트 ▲코트야드 일로일로 등 7곳이다.



하나카드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증정 행사

하나카드가 연말 해외 여행객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 공항라운지 및 액티비티 상품 할인 하나카드는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및 액티비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증정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행사 응모 후 클럽 프리미어스 스카이패스 카드(마스터) 또는 클럽 프리미어스 포인트 카드(마스터)로 15만원 이상 결제 시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2매를 제공한다.

오는 23일까지 클룩(Klook)과 함께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액티비티 상품을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로 60달러 결제하면 최대 19달러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김정신 기자

DL이앤씨, 국내 첫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 준공

전남 구례 산동면 2347.63㎡ 부지 다락방 포함 지상 1층 74㎡ 26가구

DL이앤씨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이하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각 유닛(Unit)을 공장에서 사전에 생산한 뒤 이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최소화 공기를 단축할 뿐만 아니라 균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사 과정에서 탄소와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분진과 소음이 적어 친환경 공법으로 주목받는다.

DL이앤씨가 준공한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는 연면적 2347.63㎡ 부지에 다락방을 포함한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74㎡의 26가구 규모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최근 준공 후 입주 시작했다.



DL이앤씨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준공한 국내 최초의 ‘타운형 모듈러 단독주택 단지’. /DL이앤씨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총 11개의 철골 모듈러 유닛을 조합해 하나의 주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 완벽한 단독주택을 구현했다. DL이앤씨는 2017년부터 모듈러 기술 개발에 들어가 40여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에는 ‘유닛 조합 설계’와 ‘무용접 커넥터’, ‘무하지 외장 접합 시

스템’ 등 자체 특허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이를 통해 국내 단독주택 환경에 맞는 모듈러 설계·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125% 개선했다.

기존 업계는 모듈러 운송부터 설치, 접합, 마감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로 하나의 유닛만을 활용해 소형 주택(원룸, 기숙사 등)을 제작하는 데

머물렀다.

이로 인해 모듈러 주택의 설계 및 상품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DL이앤씨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우수한 품질의 철골 모듈러 기반 단독주택 공급에 성공했다.

특히 누적된 노하우와 신기술을 활용해 유닛과 유닛을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3개), 화장실(2개), 주방, 거실, 다락, 세탁실, 베란다 등을 구성하고 단독주택의 넓은 평면을 살렸다.

DL이앤씨는 고객이 표준 모듈러 유닛을 마음대로 골라 원하는 평면을 계획할 수 있는 ‘멀티 커넥션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주방과 거실, 침실 등 고객이 원하는 유닛을 마치 레고처럼 선택하고 조립해 배치할 수 있다. 원룸이나 스파 같은 특별한 옵션도 고객 맞춤형으로 설치 가능해 모듈러 단독주택의 설계 상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우건설, 올해 ESG평가 ‘A등급’ 획득

대우건설이 올해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작년보다 전방위적인 ESG경영을 추진한 결과로 올해 ESG평가의 환경(E) 분야는 B+에서 A+, 사회(S) 분야는 B+에서 A, 지배구조(G)는 B+에서 A로 상향된 등급을 획득했다. 전 영역 우수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등급 ‘A’를 받았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에서 ESG 평가를 하는 대표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

해 등급을 발표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인 TCFD 가입의 결 및 지지선언을 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인권경영현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공동서약식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인권규정을 제정했다.

/김대환 기자

농협銀 ‘NH올원뱅크’ 신규 오픈 이벤트

혜택정보 PUSH 알림 동의해야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5가지 생활금융서비스 신규 오픈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서비스로는 ▲실시간 부동산·투자 뉴스를 소개하고 금융 상품을 연계하는 부동산 서비스 ▲국내외 경제이슈, 금융상식 등을 뉴스레터로 제공하는 머니레터 ▲소프트베리와 제휴해 지도 기반 실시간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차 서비스 ▲늘어져있던 나의

자산과 혜택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NH지갑 ▲게임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NH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올원플렛까지 총 5가지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이벤트 탭에서 혜택정보 PUSH 알림 동의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이 생활서비스에 방문하면 완료된다. 해당 고객 중 75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우1++ 선물세트(50명), 도미노피자(500명), NH포인트1만P(1000명), 카카오톡 이용권1만P(1000명), 다이소상품권5000원(5000명)을 제공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철강업계, 친환경車 부품 역량 집중... 안정적 수익창출 기대

포스코 이차전지 원료 확보 주력
현대제철 전기강판 생산·연구
동국제강 전기차산업 집중 방침

국내 철강업계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본연의 경쟁력은 물론 미래 신사업이자 고부가가치인 전기차 부품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다만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철강사가 전기차 부품 판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성장을 가속화 중이다. 이차전지 관련 핵심 원료부터 소재, 폐배터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 핵심인 원료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현대제철도 전기차 부품 판매 확대 전략에 부응한다. 현대제철은 전기차



전라남도 울진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콤플렉스

/포스코그룹

에 투입되는 전기강판의 생산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전기차 부품으로 쓰는 초고장력강과 경량화 강재의 판매 비중도 키우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핫스탬핑강 등 전략 강종 판매를 늘려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10만톤의 자동차 강판을 판매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수철강을 연구해 전기차 산업에 집중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철강업계가 이처럼 친환경 부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전기차의 부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점에서 완성차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 소재 사업 구조상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대차의 차량 판매 실적이 지난 2015년 496만여대에서 지난 2020년 374만여대로 25% 감소했을 때 같은 기간 현대제철 영업이익도 1

조4678억원에서 417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 철강업계의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 1월 5만 8725달러에 달하던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9월 5만683달러까지 하락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면 내연기관 쪽 소재 판매를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강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 부품 계약은 6개월에 한 번으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격 협정 시 우선 원자재의 가격 추이와 상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며 “그럼에도 전쟁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협상 시 이를 반영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레이 EV’ 차량공유 서비스

기아가 레이 EV의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와 손을잡았다.

기아와 쏘카는 전국의 쏘카 차량공유 대여지점인 쏘카존에 ‘더 기아 레이 EV(이하 레이 EV)’를 배치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레이 EV는 기아의 도심형 엔트리 EV로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사업자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서 레이 EV 4인승 승용 모델의 에어(Air) 트림이 운영된다. 에어 트림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운전석 폴 폴딩 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등 각종 편의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쏘카 대여 가능 차량에 레이 EV 투입을 기념해 쏘카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레이 EV 5시간 무료 시승 쿠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

태광산업
ESG 위원회 본격 활동

‘애착인형 코니돌’ 전달식 진행

태광산업이 자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신설 이후 첫 활동으로 저개발국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인 ‘애착인형 코니돌’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부문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장충동 본사에서 (사)월드쉐어와 ‘애착인형 코니돌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백민호 월드쉐어 사무국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태광그룹의 사회적 기여 가치인 ‘큰 빛 나눔’ 정신을 실현하고자 임직원 25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금과 애착인형 코니돌을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美 ‘알래스카 히트펌프 연구소’ 신설

앵커리지 대학 등 컨소시엄 발족
공조사업 ‘현지 완결형 구조’ 구축

LG전자가 미국 알래스카에 ‘LG 알래스카 히트펌프연구소’를 신설한다.

LG전자는 6일 최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냉난방공조(HVAC) 제품에 적용할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CAHR)을 발족했다.

컨소시엄에는 극지방 연구가 활성화된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과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가 함께한다. LG전자는 알래스카 연구소를 통해 기존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없던 눈, 비, 극저온 등 다양한 환경조건과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등을 반영해 장시간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은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가



LG전자가 최근 美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냉난방공조(HVAC) 제품에 적용할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봉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부사장, 손 파넬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 총장,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

정·상업용 냉난방공조 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시켜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냉난방 솔루션 관련 글로벌 R&D 조직을 지속 확대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김서현 기자 seoh@

하며 사업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공조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지역에 연구개발부터 생산, 영업,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울거나이츠
2000만弗 투자 유치 성공

LLM(거대언어모델) 올인원 솔루션 기업 울거나이츠가 270억 원(20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 후 누적액은 468억 원(3500만달러) 규모다.

이번 투자에는 신규 투자사인 인터베스트, 뮤렉스 파트너스, SK텔레콤, KB인베스트먼트,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이 합류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퓨처플레이 등이 후속 참여했다.

울거나이츠는 투자금을 기업 전용 LLM 앱 마켓 보급 확대와 한·미·일 3개국에서 기업용 업무 자동화 AI 보급가속을 위한 사업에 쓸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K온-폴스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2025년부터 ‘폴스타 5’ 공급

SK온이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6일 SK온에 따르면 SK온은 폴스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2025년부터 ‘폴스타 5’에 배터리 모듈을 공급한다.

SK온은 새로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SK온 측은 “이는 고가 전기차 부문에서의 고성능 NCM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

닌다”고 덧붙였다.

‘폴스타 5’는 폴스타가 2025년부터 생산할 계획인 럭셔리 4도어 그랜드 투어러(GT)다. 주행 성능으로는 최대 650kW(884hp)의 출력과 900Nm의 토크 등을 갖췄으며, 폴스타의 영국 R&D센터에서 개발한 ‘맞춤형 알루미늄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폴스타 5’에 탑재되는 셀은 길이가 56cm에 달하는 초장폭 하이니켈 배터리(니켈 함량80% 이상)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한다. 음극에 사용되는 실리콘 비율을 높여 충전 성능과 에너지 밀도를 한층 향상시켰다.

모듈 케이스의 강성을 확보해 열 확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전자
‘버즈 FE 토이스토리’ 선포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FE’와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케이스를 결합한 ‘갤럭시 버즈 FE 토이스토리’ 패키지를 출시한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FE 토이스토리’ 패키지는 6일부터 G마켓에서 단독 판매된다. 가격은 토이스토리 ‘랏소 베이’ 캐릭터 케이스 패키지와 ‘햄’ 캐릭터 케이스 패키지 모두 12만5900원이다.

G마켓은 출시 기념으로 6일부터 19일까지 특별한 가격에 패키지를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가격은 10만 5900원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뉴 X1 xDrive20i

/BMW코리아

BMW코리아
‘뉴 X1 xDrive20i’ 출시

BMW 소형 SAV가 가솔린 엔진을 더한다.

BMW코리아는 뉴 X1 xDrive20i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x Line과 M스포트 2가지 트림이다.

X1은 BMW의 컴팩트 스포츠 액티비티 비하클로, 디젤에 이어 가솔린 4륜구동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 X1은 날렵한 외관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미래지향적 분위기 인테리어,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액티브 스포츠 시트 등 편의 기능을 갖췄다. 적재공간은 최대 1600L에 달한다.

/김재용 기자 juk@

미술품부터 ESG... 통신사, 신사업 연계해 NFT 시장 공략

‘탈통신’ 넘어서 빅테크 방점
SKT CGV 등 NFT 갤러리
KT ESG 테마로 NFT 발행
LGU+ 롯데홈쇼핑 등과 협업



SK텔레콤이 CJ CGV와 함께 서울 코엑스와 강남역 일대 대형 미디어월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예술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를 운영한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업계는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통신’을 넘어 아예 빅테크에 방점을 찍겠다는 모습이다. NFT를 접목한 아트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가 하면, NFT로 ESG 활동까지 알리고 있다.

6일 NFT 데이터 제공 업체 NFT고에 따르면 NFT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 달 27일 기준 약46억달러(약6조2353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160억달러(약 21조6880억원)에서 약120억달러(약16조2660억원) 가까이 빠진 것. 다만, 지난해 약 178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잠재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와 게임사 등 ICT업계에서는 NFT 발행부터 신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 확

장에 나서고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대중이 대체불가능토큰(NFT)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를 운영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CJ CGV와 서울 코엑스와 강남역 일대 대형 미디어 월 구간에서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를 운영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지하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화려한

영상미를 뽐내는 유화 작품들이 펼쳐져 있었다. 생동감있는 작품들은 지하공간을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켰다.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는 10월 NSYME 작가, 김보슬 작가, 김병중 작가와 콜라보한 4인의 신진작가, 11월부터는 장승호 작가의 NFT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후에도 작가들을 지속 발굴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엑스 NFT 아트 갤러리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들도 전시중인 NFT 예술작품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탑포트에서 판매 중인 NFT 작품도 전시한다. 탑포트는 디지털 아트가 NFT 형태로 발행돼 창작자와 수집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김중승 SK텔레콤 Web3 팀장은 “최근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등 전통 Web2 기업들이 NFT를 자사의 멤버십과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NFT와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아트가 주목을 끌면서 NFT 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NFT 프로젝트에 ESG 콘셉트를 접목했다. KT는 지난해 진행한 K-T인클x라운 NFT 프로젝트의 2차 NFT를 발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NFT 구매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얻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확대하는 모델을 추구했다. KT는 프로젝트 협력기업들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NFT 판매금액의 일부를 KT인클x

라운 NFT 프로젝트 이름으로 기부해 NFT를 통한 ESG와 사회공헌을 실천한다.

SK텔레콤도 최근 탄소배출권 플랫폼 업체인 윈클과 ESG를 소재로 NFT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의 NFT 유통 플랫폼인 탑포트에서 ESG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NFT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 협약의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롯데홈쇼핑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자사 NFT(무너크루), 인천광역시 NFT(히어로즈), 롯데홈쇼핑 NFT(벨리움)를 보유한 고객(홀더)에게 3사가 신규 발행한 NFT 우선 획득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NFT 소장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각사의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업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T, 韓 AI 스타트업 2곳에 94억 투자

‘K-AI 얼라이언스’ 확장 가속화
‘올거나이즈’ 기업 AI 앱마켓 개발
‘임프리메드’ AI 헬스케어 협력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 한국 AI 스타트업 ‘올거나이즈’와 ‘임프리메드’가 합류했다. 이로써 K-AI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은 총 16곳이 됐다.

SK텔레콤은 거대언어모델(LLM) 올인원 솔루션 기업인 올거나이즈와 AI 기반 반려동물 및 인간 대상 항암제 예후 예측 모델 개발 기업에 각각 400만 달러(약 54억원), 300만 달러(40억원)를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올거나이즈는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

I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기업 문서를 빠르게 분석, 요약해 제공하는 등 업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AI 앱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서 200여곳 이상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프리메드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AI 기반 생명공학 스타트업이다. 축적된 암 환자의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항암 치료제를 추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올거나이즈와 협력을 통해 LLM 기반 AI 앱 마켓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거나이즈는 기업들이 원하는 AI 앱을 골라 법률, 인사, 마케팅 등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LLM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문서

를 요약해 일간 리포트로 제공해주거나 고객의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양한 형태의 사내 문서에서 찾아출처를 함께 표기해 환각현상을 줄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앱들이 모여 있는 마켓이다.

양사는 올거나이즈의 앱 마켓에 있는 100여 가지 AI 앱에 SKT의 AI, 클라우드 등 기술력을 접목해 LLM 기반의 기업용 AI 앱을 더욱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SKT가 출시 예정인 ‘인텔리전스 플랫폼(Intelligence Platform)’과 연동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수 올거나이즈 대표는 “SK텔레콤 AI 피라미드 전략과 올거나이즈의 LLM 인프라, 미들웨어,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 등 양사 간 시너지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기업용 업무 자동화 AI 보급을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LGU+, 산업 안전관리 DX 솔루션 출시

중소 안전관리 부담비용 낮춰

LG유플러스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앞두고 중소기업에 위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 비용을 낮춰 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대한 산업안전협회, 유엔이와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디지털전환(DX) 솔루션 ‘스마플’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산업 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경·안전 전문 솔루션사인 유엔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스마플은 아날로그식 중소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PC와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윈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픈베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불상공회의소, 테크 산업 생태계 발전 앞장

‘라 프렌치 테크’ 10주년 기념 행사

한국과 프랑스 테크 산업 생태계 발전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가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열었다.

6일 한불상공회의소는 노보텔 동대문에서 라 프렌치 테크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한국과 프랑스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행사인 ‘테크포굿 투어 2023(Tech4Good Tour 2023)’ 중 열렸다.

라 프렌치 테크는 2013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자국 스타트업 지원책으로 전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을 돕고 있다. ‘프렌치 테크 서울(French Te

ch Seoul)’은 2016년 현재 창립돼 476명의 회원과 149개의 한국 및 프랑스 기업들이 소속돼있다.

이날 라 프렌치 테크는 한국과 프랑스 두 국가를 오가며 활약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약과 뒤를 받쳐준 라 프렌치 테크의 역할에 관한 담화가 오갔다.

니콜라스 메르시에(Nicolas Mercier) 라 프렌치 테크 서울 공동 대표는 “10주년 기념행사는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하며 공유해 온 기술과 혁신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자리”라며 “10년 동안 약 30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2022년 상반기 기준 4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의 테크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엄청난 잠재



‘라 프렌치 테크’ 1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한불상공회의소

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 프렌치 테크 서울 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들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컵업, 비바테크,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디이그제큐티브센터, 창업지원포털, 한불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헬스, 美연속혈당측정기 ‘G7’ 선택

휴온스와 국내 판매 협력

카카오헬스케어는 휴온스와 미국 텍스콤의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CG M) ‘G7’에 대한 국내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휴온스 윤상배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휴온스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멸균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의학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미국 텍스콤의 연속혈당측정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카카오헬스케어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텍스콤의 ‘G7’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소개 및 판매하고 데이터 기반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오른쪽)와 윤상배 휴온스 대표가 6일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서 열린 미국 텍스콤의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 ‘G7’에 대한 국내 판매 협력 계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

초개인화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텍스콤의 G7을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당뇨 환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YO
WON 교원

wells



가지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나의 감성 레시피

FLORIN



대기오염·유지비용 ↓... 베트남·韓, 전기 이륜차로 '진화중'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 ‘배달의 나라’ 한국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쟁을 조용히 치르고 있다.

자동차도 전동화 모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서민이나 배달 플랫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 역시 완성차 회사, 스타트업 등이 가세하며 ‘전기’ 이용 모델이 증가하면서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소음이 적고, 유지비 등 고정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때문에 생계를 위해 배달 등을 해야 하는 이들에겐 전기 이륜차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오토바이 약 6500만대... 이젠 ‘전기’가 대세

6일 관련업계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 도로교통부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는 약 6500만 대다. 1억명 가량인 베트남 인구를 감안할 때 2명 중 1명 이상이 이륜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베트남 어느 도시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남녀노소가 모는 대규모 오토바이 행렬은 진풍경을 연출한다.

베트남, 오토바이 등록 6500만대 사고위험·합리적 비용 등 ‘고심’ 완성차 기업 등 ‘전기’ 모델 선택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관계자는 “베트남 국민들의 생활에 이륜차가 깊이 뿌리내린 이유는 가격이 소득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이고 혼잡한 도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기동성이 좋고,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륜차가 너무 많다보니 사고 위험성이 높고 도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기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숫자 제한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오토바이를 ‘내연기관’에서 ‘전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이륜차 중 내연기관은 9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6) 회의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이라는 목표를 선언한 베트남의 경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인 셈이다.

베트남에서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은 대기업, 스타트업 등이 두루 참여



베트남의 플랫폼 중 하나인 고젝(Gojek) 기사들이 고객들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 가운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B2B 시장, 일반 고객들을 위한 B2C 시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Vingroup)의 빈팩스트(Vinfast)는 전기버스, 전기승용차에 이어 다양한 전기 이륜차를 선보이고 있다. 더온(Theon) 모델의 경우 5.5시간 충전으로 최대 100km를 갈 수 있다. 가격은 6000만~7000만동, 한화로는 320만~370만원 정도다.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스타트업 셀렉스(Selex Motors), 닷 바이크(Dat Bike) 등도 베트남에서 B2B, B2C 시장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셀렉스의 경우 대표적인 플랫폼인 그랩(Grab), 고젝(Gojek) 등을 비롯해 커머스 선두인 라자다(Lazada)에도 전기 이륜차를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배달의민족(배민)도 호치민에서 일부는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해 라스트마일 배달을 하고 있다.

◆한국, 라스트마일 서비스 경쟁속 전기 이륜차 대안 ‘급부상’

한국에선 인성데이터, 로지올, 바이크뱅크, 닷스테이션, 로지웨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인성그룹이 전기 오토바이 전환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로지올은 업계 1위의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다. 닷스테이션은 인성그룹이 e-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바이크뱅크의 자회사다. 이들 두 회사가 그룹내 전기 이륜차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지올 최규범 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 주문 건수가 25~30% 정도 감소했다. 배달 건수가 줄면서 ‘라이더’로도 불리는 기사분들의 수익이 크게 위축됐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래서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전기 이륜차다. 전기 이륜차는 기존에 비해 유지비용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축소로)수익이 감소해도 순수익은 고정되거나 오히려 나아질 수 있어 라이더를 비롯한 생태계 참여자들과 상생도 가능하다. 결론



인성그룹 계열인 닷스테이션이 대만의 고고로와 협력해 국내에 설치한 충전 시스템.

적으로 ESG와 연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 오토바이 도입을 위해 닷스테이션은 앞서 대만의 스타트업 고고로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도입한 전기 이륜차는 로지올이 운영하는 ‘생각대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지올 윤성열 부장은 “로지올과 바이크뱅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세인 라이더가 한 달에 24일 근무할 경우 내연기관 오토바이인 ‘혼다 PCX’는 매달 약 89만원, ‘고고로 2 PLUS’는 64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연간 기준으로 전기 오토바이 교체시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성그룹, 韓 전기이륜차 전환 앞장 내년까지 전국 충전소 100곳 구축 로지올 ‘배달기사 비용 절감 효과’

고고로 전기 오토바이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경기 252대를 비롯해 전국에 701대가 다니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닷스테이션은 충전기(스왑 스테이션)를 갖춘 고고로 스왑 스토어를 서울 독산동을 시작으로 동대문, 세종, 전주, 대구, 부산 등 현재 전국에 10곳의 문을 열었고 올해 안에 20곳, 그리고 내년까지 전국에 100곳의 스토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규범 부사장은 “전기 이륜차는 소음도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전업 배달 라이더의 경우 주행거리가 연간 약 3만~4만km 이상인데 내연기관 대신 전기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약 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와도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기계회사인 대동그룹 계열 대동모빌리티도 올해 전기 이륜차를 처음 선보이고 배달 등 B2B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매직, ‘친환경 리패키지’ 은상 수상

‘2023 굿디자인 어워드’

SK매직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친환경 리패키지(Re;packag

e)’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상)을 수상했다.

6일 SK매직에 따르면 제품 배송 및 설치 후 다시 회수해 재사용이 가

능한 친환경 리패키지는 국내 최초 친환경 플라스틱(PCR-ABS)을 적용한 ‘윌클린 공기청정기’의 제품 패키지로, 가볍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을 가진 발포 폴리프로필렌(EPP)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사우디 중기청에 기술평가 노하우 전수

기술보증기금이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에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양국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협력도 모색했다. 기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중소기업청장 일행이 기술평가모형 등 주요 업무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보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우디 방문단은 중기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혁신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보를 방문했다.

기보는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술평가시스템의 개념과 평가지표 ▲인공지능을 접목한 평가방법론 ▲기술평가, 기술거래, 투자 등 주요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6일 오후 기보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업무성과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기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원제도를 공유해 사우디 중기청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도착보장’ 이용 셀러에 배송비 할인 등 ‘혜택’

CJ대한통운

신규 이용자, 이달 30일까지 건당 배송비 1000원 할인 등

CJ대한통운이 이달 30일까지 풀필먼트(fulfillment·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할인을 포함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신규 이용하는 판매자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도착보장 견적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계약 및 입고를 완료하면 된다. 건당 배송비 1000원을 한 달 동안 할인받거나 3개월간 무료로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착보장은 판매자의 물류 서비스는 물론 소비자들이 안내받은 상품 도착일에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도록 돕는 D2

C(Direct to Consumer) 솔루션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네이버와 도착보장 서비스를 론칭한 뒤 다방면의 서비스 개발을 놓고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전국에 14개 허브터미널과 280여 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첨단 물류 기술, 국내 최대 배송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역대 최고의 익일 배송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 여겨졌던 물류비 부담을 줄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 차량,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의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도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한수원, 협력사 맞춤형 ESG 역량 강화

진단·현장실사 등 종합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K-water와 올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K-water는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한다. 이후 ESG 교육,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코트라·코이카) ▲환경·에너지 컨설팅과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승호 기자

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프로그램'으로 수출규제 대응

美·EU 등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적절 대응 못하는 경우 불이익 생겨
기술적 고난이도 내용... 작성 어려워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실무교육 실시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제품 위해 리
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는 프로그
램이 개발돼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
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
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
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
폼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중
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
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
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제품 관련 사고 발생 보
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
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를 사
실상 강제하고 있고, EU는 신기술 제
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와 수리나 환불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 홈페이지.

등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
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

호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제품 리콜
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
성해 제출토록 했고, 일본은 지난 2011
년부터 기업의 제품 사고 발생 사실 보
고,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 결
정시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하
고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
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 시나리오, 사고 확률, 위해저감대
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작성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
내외 제품 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
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
일, 12월 7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
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
고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
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자체 캐릭터로 영상뉴스 전파

'안젤이', 아나운서로 재탄생

안전보건공단이 5일 지난해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개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업체인 네
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
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
로 재탄생시켜 영상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
상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젤이는 '안전제
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천사 '엔젤'
이 합쳐진 캐릭터로 지난 1999년 탄생
했다.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
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중장년 세대도 온라인 영상매
체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 캐릭터 '안젤이'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
해 글자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최신기
술(Text to Video)을 활용한 안전보건
뉴스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다. 공
단은 "영상화된 자료는 음성으로 읽어
주기 때문에 문서형태 보다 이해가 쉽
고 어려운 개념도 그림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며 "안전보건 콘텐츠 시청자들
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추가비용, 시공사 부담"... 부당특약 덜미

공정위,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
추가공사·돌발상황 추가비용 미정산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 해

공사 위탁계약을 하며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종합 건설사가 작발돼 공정거
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전
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
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흥화는 1971년 설립한 종합 건설사
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116억
8600만원, 지난해 매출액은 1685억
8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흥화는 2019년 7
월경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
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 상
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
한 특약을 설정했다.

흥화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을 보면,
'도면에 누락돼 있으나 기능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 필요시 본
공사에 포함되며, 추가 부분에 대해 정
산을 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 상 돌관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흥화는 또 2019년 7월 ~ 2020년 8월
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
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
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

지 않았다.

이와 관련,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
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
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
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
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
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 공
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
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
에서 그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
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후보 지역 물색

유일하게 대구시만 후보 없어

환경부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후보 지역 물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
으로 이달 7일~14일 면담을 실시할 예
정이다.

환경부는 5일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
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
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살펴보게 된

다"며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
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
조로 전환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
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조성
할 도시라고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84개 광

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
성사업' 참여의향을 제출했다.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광역시만 유일
하게 의향서 제출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
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 98곳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
하게 된다.

예비 후보지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
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
진전략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내
년 9월에 최종대상 지역 10곳을 선정하
기 위한 과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스공,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박차'

분할 납부 지원·요금 감면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선다.

6일 가스공사는 일반용 또는 업무난
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10월~내년 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
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
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
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
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
록 최대 59만 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
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



한국가스공사는 6일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
한다.

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또,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
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
으로 확대한다. /허정윤 기자 zekova@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총 1만2900명... 탄력배정분 활용

고용노동부가 6일 고용허가제 외국
인근로자(E-9)와 관련해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
혔다. 허가서 발급규모는 총 1만2000여
명으로, 이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는 이달 20~30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조업 5000명과 조선업 400명, 농축산
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명)을 적극 활
용할 예정"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연
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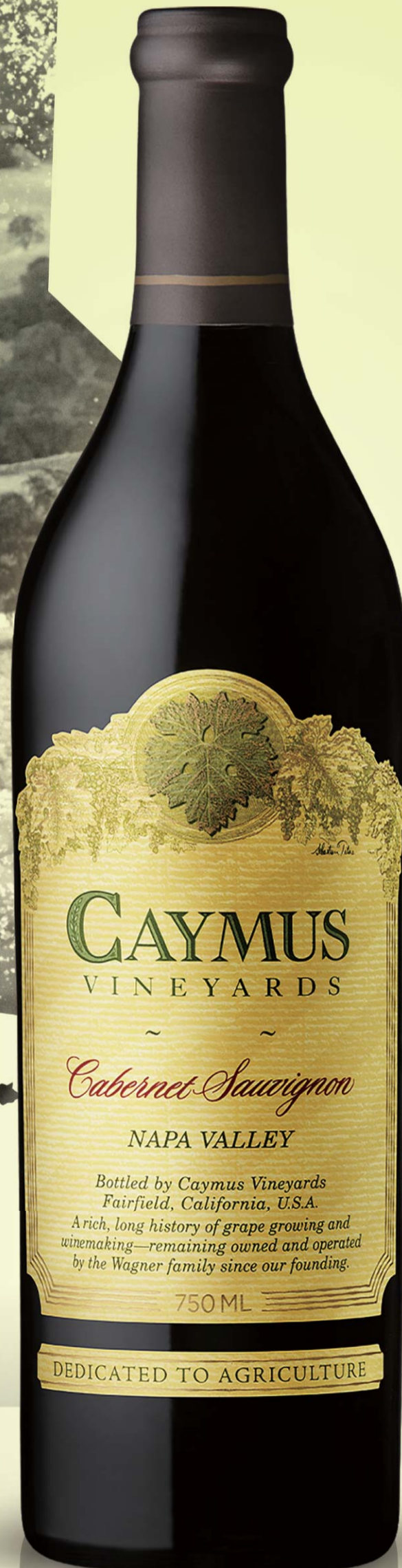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
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
용한도 2배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
-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상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4회차 발급에 연이
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
속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
인 구인노력(농축산업 7일, 그 외 업
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나파 카버네 소비뇽의 제왕 케이머스



NARA
CELLAR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직접담근 김치 기대감 커... 재료 조절해 비건김치 도전”

Q 르포 | 풀무원 운영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 가보니

“김치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재미 있고 뿌듯해요. 친구들이랑 다같이 만들어서 즐거웠던 것 같고 귀국해서도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풀무원이 운영하는 ‘뮤지엄김치간’의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김치학교’에 참여한 한 바르샤(23, 인도)씨의 소감이다.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중구 필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김치박물관으로, 2015년 4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뮤지엄김치간(間)’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김치의 유래와 종류, 담그는 도구, 공간과 관련된 유물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전시를 통해 김치와 김장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보존해오고 있다.

뮤지엄김치간에는 연간 약 4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코로나 휴관기간을 거쳐 재개관 이후 2023년에는 외국인들의 방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방문객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5%이며 미국, 유럽, 동남아 순으로 방문율이 높다.

지난 1일 뮤지엄김치간에는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

는 외국인 학생 25명이 방문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 책상 위에는 각종 양념 재료와 절인 배추가 놓여있었다.

먼저 VCR 화면에 김치에 대한 소개와 역사가 펼쳐졌다. 이후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소를 만드는 방법이 화면에 등장했다. 강사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과 함께 실제로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선보였다. 절인 배추에 들어가는 양념소는 하루이틀 숙성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양념소가 제공됐다.

간략한 이론 수업과 영상을 시청한 뒤 학생들은 각자 앞에 준비된 양념소를 절인 배추에 버무리기 시작했다. 골고루 양념이 배어들도록 문히고 난 뒤 배추 잎 두 장을 포개어 감싼 뒤 김치통에 넣으면 수업은 끝이 난다.

평소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라리사(21, 호주) 씨는 “호주에서도 김치를 먹어 봤는데 한국에서 먹은 것보다 덜 맵다”며 “직접 만든 김치를 집에 가서 먹을 생각을 하니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수업을 들은 바르샤 씨는 “채식



뮤지엄김치간 ‘외국인 김치학교’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뮤지엄김치간 도슨트와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치의 유래와 종류·콘텐츠 전시 연간 국내외 방문자 4만여명 달해 외국인 학생 25명 김치담그기 체험 “호주에서 맛본 김치보다 더 매워”

주의자이기 때문에 오늘 만든 김치는 친구에게 선물할 생각이야”라며 “오늘 수업을 통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으니 재료를 추가하거나 덜어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비건 김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치 만들기가 끝난 뒤 건

물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에 마련된 ‘뮤지엄김치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뮤지엄김치간 도슨트와 함께 30분 가량 전시관을 관람했다.

한편, 뮤지엄김치간은 2015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미국 글로벌 매거진 엘르데코(ELLE DECOR)에서 ‘세계 최고의 음식박물관 12곳’으로 소개하기도 했으며, 작년 7월에는 인도의 온라인 정보소 개 매체 ‘블리인사이드’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박물관 12곳’ 중 한곳으로 꼽

기도 했다. 뮤지엄김치간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김치 클래스 101’ 프로그램과 ‘잇츠 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어린이 대상의 김치학교 프로그램,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김치학교’ 프로그램, 다문화 이주 여성 및 그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김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030 대상 무료 김치학교 ‘비건김치’를 운영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랜드리테일, 43주년 감사제 ‘역대급 혜택’

NC백화점 등 전국 44개 지점 동참 460여개 패션 참여 연중 최대 축제

11월 쇼핑 대목을 맞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김스클럽, 이랜드글로벌 등 유통 계열사와 연합하여 ‘역대급 혜택’을 내건 43주년 창립 감사제를 두 차례 개최한다. 1차 감사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2차 감사제는 22일부터 28까지 진행된다.

이랜드 43주년 창립 감사제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 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전국 44개 지점에서 매년 11월에 진행하는 연중 가장 큰 고객 감사 축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460여개의 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1000개의 단독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이랜드김스클럽은 농산·수산·축산·가공 등의 식품 및 생활품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 감사점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등 장바구니 필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감사제는 이랜드글로벌의 브랜드를 포함한 460개의 브랜드와 협업체 1000여 개의 단독 기획 상품을 준비했다.

기획 상품은 이랜드리테일의 MD와

지점의 직원들이 지난 1년간 수집한 고객의 소리를 기반으로 ‘고객 심리가’를 적용한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선보인다.

‘고객 심리가’란 ‘이랜드리테일의 고객 상품별로 적정하다고 느끼는 가격(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을 말한다.

이번 기획 상품은 이랜드리테일에 입점한 전체 패션 브랜드의 80%가 참여해 카테고리별 최대 200개의 기획 상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실제로 영캐주얼 카테고리에서는 숲과 비즈트인 뉴욕의 가슴비 ‘구스다운 및 울/캐시미어 혼방코트’를 10만원대에 준비했다. 이외에도 모든 패션 카테고리에서 이랜드만의 수많은 기획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원푸드, 양산에 신규 식자재 물류센터

영남권 유통사업 강화 나서

동원푸드가 경남 양산시에 자동화 설비 기반의 신규 식자재 물류센터를 가동하고 영남권 식자재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섰다.

동원푸드는 지난 3일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서 정문목 동원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물류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산 신규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만6000㎡(7850평) 부지에 지상 3층과 지하 1층 등 총 4개층으로 지어졌다. 상온, 냉장, 냉동 등 모든 종류의 식자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물동량은 약 450톤으로 동원푸드가 운영하고 있

는 식자재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자동화 물류 설비를 갖춘 시설로 식자재 분류, 이송 등의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물류센터에서는 양파나 배추와 같이 외형이 일정하지 않은 식자재를 사람이 직접 검수하여 분류 및 이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배송 등의 인적 과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양산 물류센터의 식자재 자동 분류 시스템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고된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인식하고, 배송지에 맞춰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해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켜 시간 지연이나 오배송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풍선껌 불기에 도전하세요”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 개최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되살아나는 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색 대회를 개최한다. 롯데웰푸드는 2012년 첫선을 보인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을 8년 만에 다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풍선껌 불기를 비롯해 껌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펼치는 서바이벌 형태의 대회로, 매 회차마다 다수의 풍선껌 불기 능력자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번달 17일까지다. 검색 포털에서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을 검색하거나 JTBC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 시 참가자의 정보와 풍선껌을 크게 부는 영상을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 개인 SNS에 지원 영상과 ‘롯데왔다껌’, ‘풍선껌크게불기챔피언십’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하면 예선 통과 확률이 높아진다.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온라인 심사를 통한 예선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쟁을 치르는 본선 및 결승전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본선 대회와 결승전은 11월 25일에 진행된다. 해당 대회의 결과는 JTBC2 채널 방송을 통해 12월 20일과 27일에 순차적으로 방영된다. /신원선 기자



쿠팡,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단독 최저가

‘골드박스’서 최대 46% 할인

쿠팡이 와우 회원 전용 할인코너인 ‘골드박스’에서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2종’을 최저가로 단독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쿠팡은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올인클루시브 리프트권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을 찾는 와우회원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와우회원이라면 6일 단 하루, 골드박스에서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을 최대 46%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은 ▲올데이 패스 프리미엄(1인) ▲스마트패스(1인) 두가지다. ‘올데이패스 프리미엄(1인)’은 리프트권과 식사, 블루캐니언, 스노우빌리지가 포함된 것으로 44% 할인된 7만8900원에 판매한다.

휘닉스파크는 국가대표 스키장으로 프리스타일 스키&스노우보드 공식 경기장, 초보자 정상 슬로프 파노라마, 스노우보더를 위한 라운드 쿼터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겨울 스포츠 명소로 꼽힌다.

/최빛나 기자

티몬-롯데웰푸드 빼빼로데이 간식 특가

티몬이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와 함께 빼빼로 데이를 맞아 인기 간식류를 역대급 특가로 선보인다.

티몬은 롯데웰푸드와 ‘티몬×롯데웰푸드 올인데이’를 개최하며 인기 간식류를 역대급 특가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티몬은 오는 11일까지 ‘세이 헬로! 워드 빼빼로’ 기획전을 펼친다. 먼저 6일 오전 10시, 7일 오후 12시 티몬 라이브 커머스 ‘티몬플레이’ 방송에서 ▲롯데 빼빼로 패키지를 할인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종근당, 노바티스에 심혈관치료제 기술수출 1.6조 '대박'

매출액비 12%이상 개발투자 '결실'
'CKD-510' 기술수출 계약 체결
韓 제외 전세계 독점적 권리 이전

종근당이 매년 매출액 대비 12%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투자해 개발한 혁신신약 후보물질 중 하나를 다국적사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종근당은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사와 신약 후보물질 'CKD-510'에 대한 13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노바티스는 종근당이 개발하는 'CKD-510'의 상품개발 및 상업화와 관련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종근당은 계약금 8000만 달러(약 1061억원)를 수령하고 향후 개발과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12억2500만 달러(약 1조6241억원)와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를 받는다.



종근당은 앞서 지난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CKD-510'의 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종근당

종근당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CKD-510'은 저분자 화합물 질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억제제다. 종근당은 전임상 연구에서 심박세동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럽과 미국

에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한 것이다.

무엇보다 종근당은 'CKD-510'을 개발하기 위해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CKD-510'은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억제제로는 최초로 비(非)이온채널차단제로써 심장의 리듬 조절과 심박수 조절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의 근본 원인도 개선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심박세동은 심방의 규칙적인 수축이 소실되면서 불규칙하게 맥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성심질환, 확장성심부전 등의 심장질환과 동반된다.

종근당에 따르면 현재 심박세동 치료제로는 이온채널차단제가 있지만 불충분한 약효와 동서맥, 심실부정맥 등 안전성과 관련해 효과적인 약물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종근당은 일찍이 효능 및 독성 측면에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선택적 저해제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신경, 암, 면역 등의 질환 치료를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에도 자체기술로 개발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플랫폼을 활용

해 다양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근당은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이중항체 항암 바이오 신약 'CKD-702',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08' 등의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종근당은 신약개발의 범위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와 ADC 항암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업 종근당 제품개발본부장은 "노바티스가 오랜 신약개발 노하우와 상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CKD-510을 글로벌 신약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근당은 이번 계약을 동력으로 삼아 핵심 신약 후보물질들의 임상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빈혈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네스벨과 당뇨병 치료 신약 듀비에를 각각 일본과 미국에 기술수출한 경험도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배달 서비스로 K-푸드 확장 나선다

영국서 '비비고 투고' 론칭
현지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이달 팝업스토어 오픈 진행

CJ제일제당은 영국에서 배달 서비스 브랜드 '비비고 투고(bibigo to go)'를 론칭하며 K-푸드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비비고 투고'는 현지 영국 배달 프랜차이즈 회사인 '팩워터브랜드(Peckwater Brands)'와 협업체 운영되며 메뉴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제품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현지주요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Uber Eats)와 딜리버루(Deliveroo), 저스트잇(Just Eat)에 입점했다.

CJ제일제당은 정식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에 배달업 전용 데모 브랜드를 만들어 약 6주 동안 시범 판매를 운영했으며,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칠리소스 핫장, 쌈장 등을 더한 교자만두, 식



영국 런던 쇼디치에 위치한 비비고 팝업에서 만두 매대를 둘러보는 소비자. /CJ제일제당

물성 만두, 치킨, 떡볶이, 잡채 등을 메뉴로 선보였다.

향후 6개월 단위로 메뉴를 변경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소비자 리뷰 데이터는 메뉴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비비고 팝업스토어도 개최한다. 매장은 최근 런던의 중심지로 떠오

른 쇼디치(Shoreditch)에 열었다.

비비고 팝업스토어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이자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비비고 투고'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함께 아직 유통채널에 입점하지 않은 냉동김밥, 김치 스프링롤 등의 메뉴를 한정 판매

한다.

소비자 반응을 살핀 후 현지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메인스트림 채널의 신규 입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유통사 바이어들이 비비고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5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인 영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7년까지 유럽 식품사업 매출을 5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태유럽 권역 내 주요 생산 거점으로는 독일의 마인프로스트 공장과 베트남 키즈나 공장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광동제약
'비타500 자몽·라임' 2종

광동제약은 기존 비타500에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더한 '비타500 자몽·라임' 2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비타500 자몽'은 달콤쌉쌀한 맛이다. 레드자몽농축액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또 '비타500 라임'에는 라임농축액을 첨가했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C 850mg을 함유하고 칼로리는 30kcal다. 또한 광동제약은 이번 신제품을 병이 아닌 페트 타입으로 제작해 기존 비타500과 차별화했다. 170ml사이로 간편하게 휴대하며 음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이 '비타500'을 자몽과 라임 2종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광동제약

에이피알 메디큐브, 뷰티 인기제품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 다양한 혜택
뷰티·디바이스 등 할인쿠폰 제공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에이피알은 오는 24일까지 메디큐브 자사몰에서 '메디큐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오는 9일까지 엠클럽 회원 전용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리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을 우선으로 뷰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11% 할인 쿠폰과 에

이지알뷰티디바이스 5만원 할인 쿠폰을 준비한다.

9일부터는 에이지알을 포함한 메디큐브 인기 제품 15개를 50% 할인가로 판매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다른 제품군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공개하는데 이에 제품 라인별 혜택과 멤버십 회원 대상 최대 2만5000원 할인 쿠폰팩이 포함된다.

오는 20부터 23일까지는 신제품이 출시된다. 에이피알은 신제품 앰플, 로션, 세럼, 패드 등을 최초 공개하고 50% 할인 특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bhc, 박현종 회장 지주사 대표 해임

임금옥 bhc 대표이사 해임안 결의

박현종 대표이사(사진)가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스(이하 GGS)'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GGS는 bh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GGS 이사회는 6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현종 대표이사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GGS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했다. GGS 등기임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선임 GGS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GGS 이사회는 bhc 대표이사 변경 안도 발의해 임금옥 bhc 대표이사의



해임과 이훈종 사내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결의했다. bhc 대표이사 변경은 8일 bhc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GGS 이사회 관계자는 "악화되는 외부 경영환경에 맞서 GGS 및 자회사 bhc의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업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아모레퍼시픽 '퍼즈업' 굿즈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이 엔씨소프트와 협업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공식 쇼핑몰 아모레몰에서 엔씨소프트의 퍼즐 게임 '퍼즈업' 캐릭터와 테니스를 주제로 꾸민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 타올, 아크릴 키링, 댄프너 등 3종을 통해 '퍼즈업' 대표 캐릭터 헤르피를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9일까지 아모레몰에서 스포츠 타올 2입 세트는 8만원 이상 구매 시 4900원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 아크릴 키링과 댄프너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한 개를 선택해 증정받을 수 있다. /이청하 기자

Serge Bloch Solo Exhibition in Seoul

세르지블로크

KISS

2023.10.19 - 2024.3.31

뉴스뮤지엄 연희

에쓰오일, '올해의 시민영웅' 21명 선정... 1.4억 전해



중진공-한국장학재단, 청년 취·창업 지원 맞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취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6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표시멘트, 삼척시에 방진 마스크 2만장 전달

산표시멘트가 산발 대비 재난물품으로 강원도 삼척시에 방진 마스크 2만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탁한 마스크는 산발 진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왼쪽 2번째부터)배동환 산표시멘트 대표, 박상수 삼척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표시멘트



코스콤, 지역 소외계층에 15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코스콤은 지난 3일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안양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15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후원물품은 방한용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로 구성했다.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오른쪽)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코스콤 임직원 나눔 걷기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코스콤



현대글로벌비즈, '2023 물류 드림 캠프' 성료

현대글로벌비즈는 예비 물류전문가를 꿈꾸는 인재를 대상으로 한 '2023 현대글로벌비즈 물류 드림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물류업에 관심 있는 미래 인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물류현장 체험 학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현대글로벌비즈를 비롯해 물류업계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글로벌비즈



제주항공, 라오스서 23번째 의료봉사활동 펼쳐

제주항공이 (사)열린사회와 함께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3번째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사회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2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약 처방,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16년 동안 308명 시민영웅 발굴 "영웅들의 지킴이 되도록 노력"

에쓰오일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3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희생정신을 발휘한 올해의 시민영웅 21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평2차하차도의 침수된 버스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故)이수영 씨, 지난 4월 음주 측정 거부 차량을 추격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뒷줄 왼쪽 일곱째)와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뒷줄 왼쪽 여섯째)이 '2023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하며 경찰의 검거를 도와주다 부상을 입은 정종일 씨 등 의사자 2명, 부상자 2명, 활동자 19명의 시민영웅에게 각각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는 "숨은 영웅들처럼 에쓰오일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8년부터 16년 동안 총 308명의 시민 영웅에 약 20억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지원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 '한가족 화합 페스티벌' 개최

한화오션등 협력사 직원 가족 초청 "협력사 상생하며 국가사업 기여"

한화는 경남지역 협력사 가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화와 함께하는 한가족 화합 페스티벌(Festival)'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 (주)한화화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정밀기계 협력사 임직원과 자녀들을 초청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마술, 사이언스 쇼, 샌드아트 등 다양한 공연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은 "가족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 좋은 하루였다"며 "한화는 협력사에 다양한 지원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남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한가족 화합 Festival에 참여한 협력사 가족들의 모습.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요 계열사들이 연합해 진행한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협력사와 상생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한화 및 주요 계열사들은 동반성장 주간(11월 첫째 주)을 맞아 협력사 간담회, 공정거래 협약식 등을 개최하여 협력사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동반성장 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카카오메이커스, 화훼농가 판로 개척

제가버치 통해 못난이 꽃 조기 완판

카카오는 자사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가 '제가버치'를 통해 판매한 못난이 꽃이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전국의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본격 시작한 꽃 판매가 꾸준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제가버치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전국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 더 많은 이용자를 만나 판매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거래액 268억원을 돌파했으며, 약 4730톤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이 110만여명의 소비자를 만나 제 값을 받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조아제약 "‘빼꼼’ 작품 구경하세요"

조아제약이 가족 간 소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조아제약은 2023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 결과 전시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서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빼꼼'은 조아제약이 후원하고 서울문화재단 서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진행한 행사다.

참여 가족들은 정희기 텍스타일 아티스트와 함께 가족의 추억이 담긴 천을 활용해 패치워크 페인팅 작품을 만들었다. 배석민 ICT 융합공학박사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 가족 동화책과 아트테라피 추상화도 제작했다.

/이청하 기자 ml236@

모비스,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

생활습관 개선 등 우수 평가

현대모비스 사업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R&D) 본진인 경기 용인 마북연구소와 전장부품 생산기지인 충북 진천공장이 '2023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근거해 선정한다.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건강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양성운 기자

공단 소속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건강증진 활동 실행률과 임직원 참여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장 기준으로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마북연구소와 진천공장이 선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직차원의 생활습관 개선 활동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특히 통증 질환자 중심으로 진행한 운동치료와 3D 체형분석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미원면 프로젝트' 전개

'미원산골마늘빵' 브랜딩 지원

대상이 미원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으로 '미원면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원면 프로젝트'는 대상(주)이 지난 9월 선보인 미원 광고 캠페인 시즌3 '아빠의 일기'와 리미티드 에디션 '미니미원' 출시에 이어 지역 상생과 미원 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베이커리 '미원산골마늘빵'의 브랜딩 전란을 지원하는 활



대상(주)이 지역 상생 브랜드 캠페인 '미원면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대상

동을 통해 지역 관광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고

- ▲최홍련씨 별세, 함명자(시인·수필가)·함영경·함영화·함영삼·함영애·함영훈(헤럴드경제 선임기자)씨 모친상 = 6일 오전 5시30분, 강원 동해전문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033-531-474
- ▲천세록씨 별세, 천유경씨 부친상, 박양수(IBK투자증권 사모펀드운용본부장 상무)씨 장인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 발인 8일, 02-3010-2000
- ▲최주순씨 별세, 이경호(중흥건설

- 그룹 중흥토건 대표이사)씨 모친상 = 6일,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062-606-4000
- ▲오상복씨 별세, 정찬주씨 남편상, 오태환(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근무)·오수미씨 부친상, 김지중(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근무)씨 장인상 = 5일 낮 12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2262-4820

우아하고 세련된 직사각형 케이스에
담긴새로운 작품 레이몬드 웨일
토카타컬렉션을 만나보세요.



RAYMOND WEIL

GENEVE

서울시 체감경기 소폭 개선됐지만 기준치는 밀돌아 아직은 '부정적'

서울연구원, 3분기 소비자태도지수 전분기 대비 4.9p 올라 95.9 기록
가구소득별로 2400만원 미만가구 전분기대비 6.9p올라 최대폭 상승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밀돌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연구원의 '2023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4.9포인트 오른 95.9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1분기 88, 2분기 91, 3분기 95.9로 두 개 분기 연속 오름세이나, 기준치(100)를 하회해 경기에 먹구름이 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태도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나 소비 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원 미만가가 직전 분기 대비 6.9포인트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가 전 분기보다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뛰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5.3으로 직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올라 상승으로 전환됐다. 시민들이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46.4%)였다.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3.2%), '가계부채 감소'(11.9%)가 뒤를 이었다.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5.3포인트 오른 85.5로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3.8포인트 오른 77을 나타냈다. 1년 후 서울 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선 '세계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이 각각 23.6%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기업경기 회복'(18.4%), '부동산 경기 회복'(14.4%), '막연한 기대감'(13.8%), '주식시장 활황'(6.3%)이 그다음이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보다 5.3포인트 상승한 64.3이었다.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직전 분기 84.6에서 올 3분기 87.3으로 2.7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문화·오락비'가 68에서 74.1로 가장 큰 오름폭(6.1포인트)을 기록했다. 이어 '교통·통신비'(93.4→98.2) 4.8포인트, '주거비'

(96.8→99.8) 3포인트 순이었다. '식료품비'는 0.7포인트(99.3→100)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으나, 품목 중 유일하게 기준치(100)에 도달해 향후 1년 후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110.9에서 3.3포인트 오른 114.2를 나타냈다.

올 3분기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분기보다 3.2포인트 상승한 77.3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순자산지수는 96.6으로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소폭 올랐다.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3600만원 미만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 상승했다.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금융자산 증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소득 증가'(29.6%), '부채 감소'(23.6%)가 뒤를 이었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7.9로 지난 2분기보다 2.8포인트 올랐지만, 5분기 연속 70대 수준을 유지해 전망이 밝지 않았다. 물가예상지수는 139.5로 전 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해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30대로 떨어졌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광장시장까지 간다

서울시, 노선 연장... 총 4.8km 운영

서울시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의 노선을 광장시장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3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총 3.2km)까지를 순환 운행했다.

이번에 연장되는 광장시장 구간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자율주행이 어려운 구간이다. 시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운행 안전성을 검증한 뒤 세운상가부터 광장시장까지 총 4.8km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이달 9일부터 운행이 일시 종료된다.

시는 자율주행시스템 내부 점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버스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를 진행한 뒤 현재 무료로 운행 중인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를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 사업은 총 6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여의도·중앙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는 서류 검토, 안전운행능력 검증,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울시, 저층주택 밀집 1만㎡ 미만 대상 오는 30일까지 접수, 내달 대상지 선정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시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석 대상지에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3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사업자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달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건축계획안작성 및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내달까지 44개교 대상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 참여·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이

번 뮤지컬 공연은 사전 신청을 한 400여개 학교 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우수 44개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컬처패밀리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E와 I 사이'(초등용), '다시 만난 세계'(중등용)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에

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선서문 낭독 ▲학생 배우로 참여 ▲관람 후 활동지 작성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무 / 07:03 | 해짐 / 17:28

11월 7일 (화)
음력 : 9월 24일

수도권 날씨
3~1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9, 동두천 1/9, 가평 2/9, 양평 3/10, 용인 4/9, 평택 5/11, 인천 5/9, 수원 4/9, 파주 2/9, 서울 3/10,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CIA 국장 중동 순방...이스라엘과 정보 공유 확대 추진 /사진 뉴시스
▲하마스 고위급 "북한은 동맹국...함께 미국 공격할 수도"

▲中 동북부 때이른 폭설·한파...경보조치까지 내려져
▲日 기사다 사칭 시 '가짜 동영상' 확산... "민주주의 기반 손상"



▲우크라이나 "러 사상자 하루 만에 1000명 증가...총 30만5090명" /사진 뉴시스
▲日 도쿄서 8일부터 G7 외교장관 회의...이·팔 정세, 중 동향 등 논의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플무원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 가보니
“비건 김치, 도전”
L1



Life

종근당, 노바티스에
심혈관치료제 기술수출
1.6조 ‘대박’
L2



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춤형 지원... “사회공헌 지속 추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하이투자증권

분기별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
계절, 명절 등 고려 다양한 활동
홍원식 사장 “나눔의 의미 전파”

하이투자증권은 분기별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섬세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절이 돌아올 때면 날씨로 인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고려하고, 명절·창립일과 같은 기념일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하이투자증권은 ESG 경영의 실천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선물... 하이투자증권이 챙겨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연초 영등포사회복지협의회에 설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DGB 온기 가득 설명절 떡국떡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매년 DGB사회공헌재단이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기원하고자 마련하는 시간이다.

당시 하이투자증권은 DGB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준비한 후원금 1000만원으로 떡국떡, 곰탕, 라면, 고추장, 햇반 등으로 구성된 설 선물꾸러미를 300개를 준비해 영등포 사랑나눔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푸드뱅크란 FOOD와 BANK의 합성어로 식품 나눔 제도 중 하나이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처음으로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마련했다”며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에도 명절을 맞이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지원했다. 추석 기념으로 열린 DGB사회공헌재단의 ‘DGB 행복 Dream Day(드림데이)’에 참여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 등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9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과일과 사골 우거지국 등 6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세트와 쌀, 포기김 등(1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물품은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장애 가정과 유관기관 이용 가정 등에 전달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최종환 서울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맨좌측)과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맨우측)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명선 서울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장과 성흥기 하이투자증권 경영문화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동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연령·계층 등 사회공헌 활동 시야 넓혀

하이투자증권은 명절에는 소외계층과 장애가정을 챙겼다면, 기념일에는 소아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로 사회공헌 활동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다. 가정의 달이었던 5월에는 소아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한

‘DGB 행복드림데이’ 등 참여 창립 34주년 기념 쌀 330kg 기부 “소외되는 이웃 없도록 노력할 것”

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5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집단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후원했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은 1250만원의 후원 기금을 전달했다.

슬기로운 집콕생활은 DGB사회공헌재단의 행복 Dream Day(드림데이) 참여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맡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센터를 활용해 총 3회

차의(회차별 30명씩, 총 참여 인원 90명) ZOOM(Zoom)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각 회차별 총 4회의 미술, 방송 댄스, 과학 등이 마련됐으며,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 난치질환 환자가 다양한 활동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혹서기였던 7월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DGB사회공헌재단의 ‘DGB 블루윈드(Blue Wind)’에 참여했다. DGB 블루윈드는 DGB사회공헌재단이 무더위 극복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하이투자증권은 김옥 서울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 여름 이불, 해충제, 사골곰탕 등 8여 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KIT’ 80개(500만 원 상당)를 준비해 서울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마포구 관내 남성 독거, 거동 불편 및 주거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다.

홍 사장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일회성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지속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며 “폭염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진행할 것

지난 3일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창립 34주년을 기념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온열 찜질기와 겨울이불 세트(500만 원 상당)를 준비해 서울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며 DGB금융그룹 계열사에서 받은 축하 쌀 330kg도 함께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금천구 관내 저소득 및 정부양곡수혜 대상 가정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성흥기 하이투자증권 실장은 “창립 34주년을 맞아 추운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의 혜택이 여러 곳에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베이스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하성, MLB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한국인 최초 /사진 뉴시스
▲ NBA 클리블랜드, 커리 앞세운 골든스테이트 연승 저지

▲ ‘황의조 폴타임’ 노리치, 퇴장으로 10명 뺀 블랙번에 1-3 완패
▲ U-17 월드컵 나서는 변성환호,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국



▲ 손흥민·이강인 등 11월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명단 발표
▲ 조코비치, 사상 첫 마스터스 테니스 통산 40회 우승 /사진 뉴시스